일하는 즐거움으로 누리는 활기찬 노후생활

전주시 · 전주시시니어클럽, 공공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 안전교육 가져

전주시와 전주시시니어클럽은 13일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올해 공공형 노인사회활동에 동참할 참여자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공공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가졌다.

전주지역 노인들이 일하는 즐거움과 소득 창출을 통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됐다.

전주시와 전주시시니어클럽(회장 선우형)은 13일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올해 공공형 노인사회활동에 동참할 참여자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공공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된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여자의 결속력을 향상시키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활동을 수행해갈 것을 선언하는 힘찬 구호와 선언문 낭독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안전한 활동을 돕기 위해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주제로 한 교육도 진행됐다.

이와 관련 시는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공공형(공익활동) 9700명과 사회서비스형 2327명 등 총 1만 312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형의 경우 △학교스쿨존 및 급식지원 △공원·하천 환경개선활동 등 11개월 동안 1일 3시간(20분 활동, 10분 휴식), 주 3일, 월 10일 조건에 매월 27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일부사업 만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보육시설과 재가시설 및 공공전문서비스분야에서 일하게 되며, 10개월 동안 1일 3시간, 주 5일 근무조건에 매월 최대 71만2000원이 지급된다.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의 경우 사업운영 수익률과 고용된 기업의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시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소득도 창출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우형(우림스님) 전주시시니어클럽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주시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 노인들이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범기 시장은 "참여하신 모든 어르신들이 일평생 쌓아온 경륜과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토대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전주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 달라"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감과 자존감을 높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QR코드 활용 민원서식 안내

전주시 완산구, IT융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완산구청은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편리와 탄력 운영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 작성방법을 QR코드로 제작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마련해 운영한다.

QR코드로 제공 안내 서비스는 등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출생·사망신고서 등 총 8가지로 마련했다.

제작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이미지로 바로 연결되어 복잡한 민원서식 작성에 도움이 적용 되고 있다.

기존까지는 작성공간이 한정되어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공무원의 도움 없이 손쉽게 서식을 작성할 수 있어 방문 민원인들의 호응도가 높다.

구는 오는 15일까지 각 동에도 배부해 주민센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비치할 예정이다.

구는 이외 구민이 원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시대와 세대에 발맞춘 IT융합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행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집중'

전북경찰청, 협박 · 갈취 노조간부 2명 구속

전북도내 건설현장의 금품갈취 및 폭행·협박·갈취에 따른 행세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총 5회에 걸쳐 전주 등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노조 전임비 등 금품을 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안전 문제를 빌미로 관청에 고발하겠다" 등 공갈을 하며 42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발생됐다.

이에 강황수 전북경찰청장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수사에 착수했고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장 A씨(4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은 '단결, 투쟁'이 적힌 조끼를 입고 노조마크를 부착한 차량에 대형스피커를 거치하고 전북 관내 수많은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를 하거나 환경 문제로 관할 관청에 고발하겠다"는 방식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잔존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다. 도민여러분들의 건설현장에 대한 폭력 및 갈취, 협박 등 피해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경정 여상봉(063-280-8069)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미래유망기업 청년일자리 참여자 모집

전주시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망기업에는 오래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연결해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역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주시 미래유망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참여 기업 10곳과 참여 청년 10명을 모집한 뒤, 4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기업의 경우 기술혁신형·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부처로부터 수상 또는 인증을 받은 미래유망기업이다. 참여 청년의 경우 전주시에 주민등록된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최종 선발된 기업에는 2년간 신규 고용청년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며, 참여 청년의 경우 직무교육을 받은 후 사업참여 기간동안 자기개발비와 문화생활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2년간의 사업 종료 후 추가로 1년간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경제산업국 관계자는 "전주 지역에 청년들이 머르는 것이 차선이 아닌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발굴해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 및 청년은 미래유망기업 청년일자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온라인(전주시중소기업인 연합회, 전자우편 제출)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양은경 기자

전주시, 시민 누구나 혜택 받는 자전거 보험 가입

전주시가 지난해 가입한 '2022년 시민 자전거보험'으로 인해 자전거 사고를 당한 372여명이 총 3억8935만원의 보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키로 했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민 자전거 보험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과 체류지등록이 된 등록 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체 자동가입 된다.

올해 자전거 보험 가입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며 1년이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다.

주요보장내용은 △상해위로금 30~70만 원(병원진단 4주 이상 필요) △사망 2500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한도 △벌금 최대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단, 고의 사고 등은 지급이 제한되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전주시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보험금 청구서식 등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448)로 문의하면 된다. /조아록 기자

전주시 덕진구 최근 3년 화재 발생 원인 52.4% '부주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0년~2022년) 전주시 덕진구에서 발생한 화재 565건 중 296건(52.4%)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13일 당부했다.

화재 296건의 세부 발생 내용에는 담배꽁초 부주의가 101건, 음식물 조리 부주의 72건, 기기 사용·설치 부주의 27건, 쓰레기 소각 24건, 불씨·불꽃 방치 24건, 용접·절단·연마 부주의 10건 등으로 조사결과를 보였다.

덕진소방서는 화재 취약 대상 현장 지도점검 및 안전교육, 다중이용시설 화재 불시 화재 안전조사, 화재예방 홍보·교육 강화 등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크고 작은 화재가 곳곳에서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봄철 화재 원인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